



9면

도시·농촌 청년, 무주서 만났다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음 6월 14일) 제33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가 열리는 부안 새만금 부지를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의 준비 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전한 잰버리' 강조

# “막바지 준비 빈틈없이”

### 새만금잰버리 준비 현장 찾아 시설 전체 안전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8월 1일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잰버리와 관련 안전한 잰버리를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개최지인 부안군 새만금 현장 부지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남희영 소방청장도 동행했다. 이 장관은 대회가 열리는 이영장 경관원터에서 8.84km(287만4,000여평)에 달하는 부지 전체를 둘러보면서 주요 시설과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장관은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은 오후 2~4시를 택해 현장을 찾아

폭염쉼터·화장실·샤워장 등 이영장 전체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대회 참가자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직소천 수상안전센터를 찾아 수상안전 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영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간이 펌프장과 배수로와 불발터위를 피하도록 만든 덩굴 터널 등 폭우·폭염 피해 방지 시설도 점검했다. 개명식과 K-콘서트 등 주요 행사 진행 시 다수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대입회장 점검에도 중점을 두고 둘러봤다. 주요 행사 진행 시 다수 인파가 밀집해도 모두가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는지 살폈다.

또한 이 장관은 전날부터 대회 기간 내내 운영하는 경찰차와 소방차도 찾아 분야별 안전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안전한 잰버리를 만들고 있다”며 “폭염에 대비해 그늘시설, 탈수 예방 음료와 식중독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대회는 4만 3,0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라며 “폭우·폭염과 다중인파 관리가 특히 중요하기에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빈틈없이 막바지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월 1일 개막하는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회는 154개국 만 14~17세 청소년 4만3,000여명이 참가한다. /김재훈 기자

### 장수군 북쪽 11km 지역에서 3.5 규모 지진 발생

지난 29일 장수군 북쪽에서 3.5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7분경 장수군 북쪽 11km 지역 6km 깊이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고, 7시 43분에 동일지역에서 규모 1.3의 여진

이 있었다. 전북의 진도는 V이며 진도 V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기도 한다. 전북도는 오후 7시 25분 도민들에게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문자를 발

송했으며, 재난예경보 및 마을방송 1,194개소에서 지진관련 재난방송을 송출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접수된 유감신고는 43건이며, 피해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29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13개 협업기능 부서들이 비상상황을 유지했다. /김재훈 기자·장수=교관호 기자

## 도내 과학기술·산업 발전 기여 공로 인정

### ‘제3회 전북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 3명 선정

이성권 이피캡텍 대표·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정병영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전북도는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에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제3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세 번째로 수상하는 전북도 과학기술인 대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으로 전북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상으로 매년 시상한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장 △정병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소장 △이성권 (주)이피캡텍 대표이사이다.

전북도는 5월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의 후보자가 접수 현지 실사 및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을 선정했다.

이성권 (주)이피캡텍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전례없는 관련 기술인증서 보유(8개), 특허등록(16



이성권



김진상



정병영

개), 특허출원(14개), ISO인증(3건) 등 연구개발 실적 보유 및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2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1년 새만금 산단에 700억 규모를 투자해 제1공장과 제2공장 준공을 앞둔 5월 충북 음성에서 군산으로 본사를 이전, 제3공장을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은 탄소복합소재 분야 기술 개발로 방위산업 인프라 마련 및 미래 모빌리티 수소 전기차 산업 선도 발전을 마련했다.

탄소복합 소재 부품 관련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사업 기획 발굴 및 도내 기업에 기술 이전 등 지역 산·학·연 융합 연구사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200억을 투입, 2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병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소장은 천연잔디 추출물 ‘메이신’을 활용한 특허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해, 올해 도내 연구소기업 2개를 설립 및 하반기에 1개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 기술사업화 위해 방사선 연구소개발사업 육성센터 운영으로 도내 벤처기업 17(16개)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수상자들은 오는 9월 8일 열리는 제17회 과학축전 개막사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며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에 따라 전북인재개발원의 과학기술분야 교육 강사 우선 위촉, 데미셀 유안립 시설 사용료 면제, 전북 도립국악원 수강료 50% 면제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과학기술인대상 선정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와 노력이 결실되고 과학기술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과학기술인이 전북에서 존중받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 필리핀 블라칸주와 공공외교 초석 마련

### 페르난도 주지사, 김관영 도지사 예방 지역 교류 제언

### 김 지사 “양 지역간 다양한 교류협력 이어나가자”

필리핀의 성장 도시로 꼽히는 블라칸주 대표단이 전북도를 방문해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을 타진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외교의 초석이 마련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28일 필리핀 블라칸주 다니엘 페르난도 주지사 등 대표단은 전북도를 방문, 김관영 전북지사를 예방하고 지역 간 교류 가능 분야를 비롯해 소속 기초단체 간 계절근로자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면)

이번 만남은 페르난도 주지사가 작년 12월 전북도와의 교류협약 체결 등

적극적으로 제안한 뒤 대표단 공식 방문으로 이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블라칸주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 약 370만명의 도시이며 오는 2027년 필리핀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인 데다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역사 및 농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양 단체장들은 농업 기술, 문화 교류 등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벌였다. 또한 블라칸주 기초단체와 전북 도내 기초단체간 계

절근로자 필요시 업무협약(MOU)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은 무한한 가능성의 땅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수소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블라칸주 역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다. 양 광역지방정부간 활발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은 농업의 강점을 살려 농생명바이오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며 “계절근로자 도입 등 기초단체 교류를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